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2년 9~10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_new/al/sal/0301ls.jsp?PAR_MENU_ID=048&MENU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I

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

- 등록 여성장애인 산모, 태아 1인당 1백만 원 지원 -

■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, 각 지자체, 장애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.

-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.
- 실제,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*,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*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.8%(비장애여성 47.8%),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.7%(비장애여성 15.5%):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

■ 보건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*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.

* 최근 3년간 평균 1,114명 이용하였으며, 올해 1,430명 지원 목표

- 우선 지자체에는 '행복 이(e)음 누락서비스 조회'를 통한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였으며, 보건소, 대한산부인과 의사회,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(리플릿)을 배포하여 제도 홍보

및 안내 등을 요청하였다(9.20.).

- 또한,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*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
*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

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포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-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(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)*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·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.

*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

- 방문 신청의 경우,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인 신분증,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.

- 특히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

- 온라인 신청의 경우, 복지포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'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'→ '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'에서 신청할 수 있다.

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로 문의하면 된다.

-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올해 약 1,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, 이번 사업이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
- (사업대상)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*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)은 지원 불가
- (사업방식) 지자체 경상보조(서울 50%, 지방 70%)
- (사업내용)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(현금지원)
- (신청방법) 방문 또는 온라인* 신청
 - (방문신청)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(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)
 - (정부24 온라인신청)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
* 「정부 3.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」 통한 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
 - (복지로 온라인신청) 복지로 사이트 접속*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(공인인증서 필요) *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

○ 업무처리 절차

절차	주체	내 용
신청·접수	읍·면·동	○ 신청방법(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) - 방문신청: 읍·면·동 직접 방문(구비서류 필요) - 온라인신청: 정부24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(공인인증서 필요) *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(단,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 필수) ○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*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*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
↓		
대상자 자격확인	읍·면·동	○ 등록장애정보 확인(행복e음을 통한 확인) ○ 지원대상 여부 확인(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)
↓		
결정 및 지급	시·군·구	○ 결정 ○ 개별 계좌 입금(e호조)

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981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2022.9.28.

II

보육의 핵심, 보육교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로 만들어가겠습니다.

- 유보통합을 고려한 보육교사 제도 개선 이어가기(릴레이) 간담회 개최 -

-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(원장 나성웅)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·보육통합(이하 ‘유보통합’)의 추진에 맞춰 「보육교사 분야 제도 개선방안 마련」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의 전문가 이어가기(릴레이)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보육교사 관련 이어가기(릴레이) 간담회는 「보육교사 양성·자격 체계 개편 및 처우 향상 등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자 기획되었다.
- 첫 간담회 주제는 “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 방안”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자(패널) 토론이 진행되었으며,
 - 이후 「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, 유보통합을 고려한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, 장애영유아 담당교사 자격제도 개편, 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와 교육과정 개선」 순의 주제로 후속 간담회가 진행됐다.
- 이날 간담회 주제 발표로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유아교육과 서귀원 장학사가 ‘유치원 교사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 현황’에 대해, 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장영인 교수가 ‘보육교사의 권리존중 환경 조성방안’에 대해 발표했다.
-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유보영 과장,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흥원자 센터장,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함미영 지부장, 맑은숲어린이집 안성화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-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자격·양성·교육·권리보호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.
-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“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육교사

의 자격 및 양성체계, 보수교육 체계 등을 정비하고 보육교사의 권익 증진 환경을 조성하여 보육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은 “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유보통합에 발맞춰 보육교사의 지위와 근로여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827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2.9.29.

III	보건복지부,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 시범 인증 -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 -
------------	-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(원장 조현장)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‘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*’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.

* 건강 유지·증진과 질병예방·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·교육·훈련·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

- 이와 더불어 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*’의 케어코디네이터(간호사·영양사)**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·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·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·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** 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’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(혈압·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,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·상담,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·협력 등)를 수행하는 인력

-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.

1.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

- 보건복지부는 “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(22.6월)” 및 “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

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('22.6월)'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,

* (보도자료, '22.6.20.(월)) "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-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 확정"

(보도참고자료, '22.6.24.(금)) "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(6.28)"

-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('24.하반기 계획)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,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('22.6월~'24.6월)이다.
-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심의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및 민간 공동위원장)의 심의를 거친 결과 서비스 내용, 서비스 효과 및 이용자 편의가 우수한 12개의 서비스를 최종 시범 인증하였다.

■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이며, (1군)만성질환관리형, (2군)생활습관 개선형, (3군)건강정보제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.

- 또한, 시범 인증 신청·심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이후 내년 상반기 중 2차 신청·심사가 예정되어 있다.

〈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 〉

	1군 만성질환관리형	2군 생활습관개선형	3군 건강정보제공형
대상	질환군(만성질환자)	고위험군~건강군	건강군
내용	의료인의 진단·처방 범위 내의 환자건강관리 및 교육·상담	생활습관, 신체정보 등에 기반한 건강목표 설정, 비의료적 상담·조언·모니터링	공신력있는 기관의 객관적 통계·정보 등 건강 정보 단순 안내
시범인증 서비스 (기업명)	닥터다이어리 (닥터다이어리): 당뇨환자 관리 S-헬스케어 (창헬스케어): 당뇨환자 관리 케어디 (메디칼엑셀런스): 고혈압·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 (휴레이포지티브): 당뇨환자 관리 키니케어 (유티인프라): 임환자 영양관리	로디 (㈜지아이비타):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제공 바이오그램 (㈜헬스맥스): 맞춤형 운동량, 식단 등 제공 실비아 (실비아헬스):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 (KB헬스케어):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 (비엠엘): 일반인·만성질환자 건강관리	런데이 (㈜팜): 개인별 운동량 측정·관리 스마트주치의 (송파구보건소):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

*가나다 순 정렬, 서비스명(기업명)

■ 보건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(<http://www.khealth.or.kr>)에 게시하고, 인증 서비스에는 각 군별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국민들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시범 인증 서비스 대상으로 분기별·반기별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등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.

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마크 〉

 <p>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통 보건복지부</p>	 <p>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만성질환관리형 보건복지부</p>	 <p>2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생활습관개선형 보건복지부</p>	 <p>3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정보제공형 보건복지부</p>
공통	1군	2군	3군

■ 특히, 1군으로 인증된 5가지 서비스의 경우 이미 발표한 비*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(이하 의원)이 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’의 환자 관리 수단**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.

* (보도자료, '22.9.2.(금)) "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"

** 환자관리는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,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의 경우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가능

2.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

■ 한편, 보건복지부는 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’에서 고혈압·당뇨 환자 대상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.

■ 케어코디네이터는 ‘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’에 참여하는 의원에 고용되어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(혈압·혈당 수치 및 질환 상태 모니터링, 영양 및 생활습관 교육·상담, 의료진과 환자정보 공유·협력 등)를 수행하는 인력으로,

○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내실 있는 환자 관리를 진행*하는 등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크나,

*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미고용한 의원보다 환자관리서비스 제공비율이 20.7% 높음 (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

○ 의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, 구인 어려움 등으로 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.3%(’22.8월 기준)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.

■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내과의사회, 대한간호협회,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 등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이를 위해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○ 먼저,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의원과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 간호사 등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단시간 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,

○ 케어코디네이터 업무 능력에 대한 의원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 직능단체별 케어코디네이터 표준교육과정*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운영하고,

*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성하되, 심화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중

○ 취업 연계 이후에 안정적인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의 사후관리(방문, 전화 등)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과제를 발굴·추진할 계획이다.

■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“국민들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란다”며,

- “이와 더불어 고혈압·당뇨 등 만성질환자 분들이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가실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 | **인증서비스 주요 내용**

■ 1군 인증 서비스(만성질환관리형)

서비스명(기업명)	서비스 주요내용
닥터다이어리 (닥터다이어리)	- 당뇨 환자 를 대상으로 혈압, 심박수, 체중, 당화혈색소, 운동, 복용 중인 약물, 섭취한 음식 데이터 등을 기록하고, 일별·주간·월별 데이터를 취합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고서를 제공
S-헬스케어 (창 헬스케어)	- 삼성생명의 당뇨 보험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당뇨 질환 관리를 위해 혈당·복약·혈압·체중 데이터 등을 전송·관리·분석 - 걷기 등 건강활동 관리, 복약 알림 등 질환 관리 지원
CareD 케어디 (메디칼 엑셀런스)	- 고혈압 및 당뇨 환자 를 대상으로 혈당, 혈압, 체중, 활동량, 식사 등을 기록하고 의료진·헬스 코치가 해당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환자와 메신저 기능을 통해 실시간 소통 - 기본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와, 의사의 처방을 통해 수행하게 하는 처방 교육 프로그램 제공
케어크루 (휴레이포지티브)	- 당뇨 환자 를 대상으로 자가 혈압·혈당 측정이 가능한 IoT 혈압계, 혈당계, 체성분계를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기록,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업에 고용된 케어코디네이터(간호사·영양사)와 의사가 케어플랜에 의해 12주 간의 집중 관리 프로토콜 제공
키니케어 (유티인프라)	- 암 환자 대상 맞춤형 식사관리 솔루션 으로, 사용자가 입력한 신체와 치료정보를 바탕으로 권장 섭취 칼로리 등의 영양 기준을 제시 - 식사 때 섭취한 음식과 섭취량 입력 시 기준 대비 섭취량 확인 가능, 입력된 음식 데이터로 영양 분석 리포트 제공

■ 2군 인증 서비스(생활습관개선형)

서비스명(기업명)	서비스 주요내용
로디(지아이비타) ※ 현재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만 다운로드 가능	- 웨어러블 기기 를 통해 걸음, 수면, 체질량 등 데이터를 추적·분석하여 AI 데이터셋 기반의 개인 맞춤형 피드백 제공 - 사용자의 종합적인 컨디션을 고려한 개인별 운동, 식이, 수면목표 및 프로그램을 설정 하고 제안, 경제적 리워드 시스템 구축
바이오그램 (헬스맥스)	- 건강증진을 원하는 일반인과 대사증후군 환자 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운동량, 권장식단, 권장운동 제공 -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개선 성공률, 생체나이(대사나이, 비만나이) 등 산출
실비아 (실비아 헬스)	- 치매위험군(중장년) 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, 두뇌 건강관리, 전문가 상담을 위해 데이터 전송·관리·분석 - 두뇌 건강조사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생성, 매일 10분 간 인지 트레이닝 훈련 제공, 전문가 상담 및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
오케어 (KB헬스케어)	- 건강위험군의 생활습관 관리·개선 을 위해 건강검진 결과 분석,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 활동 및 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
웰비 (비엠엘)	- 일반인과 만성질환자 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건강상태 별 관리를 위해 데이터 관리·분석·전송 기능 제공 - 휴먼코칭(생활스포츠포지터) 를 활용하여 운동 코스 제공

■ 3군 인증 서비스(건강정보제공형)

서비스명(기업명)	서비스 주요내용
런데이 (땀)	- 건강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/걷기/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콘텐츠를 통해 개인별 운동량을 측정관리하는 서비스
스마트주치의 (송파구보건소)	- 개인 건강정보 정보 전송을 통해 보건소 사업(영양플러스사업, 대사증후군 관리사업, 방문보건사업 등) 대상 여부 판단 - 지역 보건기관 위치 및 보건서비스 이용 가능 장소 안내, 지역별 건강지수 개발하여 건강지도 작성 및 주민에게 공개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835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22.10.06.

IV

민·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치매친화 환경 조성

- 치매어르신 '배회감지기' 무상 보급, 치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중앙치매센터·한국사회복지협의회'자원봉사 시스템' 연계 운영 -

■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치매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1일(화)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「배회감지기」를 무상 보급(총 2,507대)한다고 밝혔다.

○ 「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」은 2021년 7월 보건복지부-경찰청-SK하이닉스의업무 협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시작하였다. 이 사업은 SK하이닉스의 후원금(년(年) 4억 원) 지원을 받아 2024년까지 매년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며 통신비(2년)도 전액 지원하게 된다.

* '21년 3,106대 보급

※ 배회감지기(위치추적기):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음. 미리 설정해 둔 권역(안심존)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, 위기상황 긴급 호출(SOS) 알림도 가능함

■ 올해 배회감지기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배회감지기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*하여 보급하게 된다.

*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등 사전등록이 된 어르신으로, 배회나 실종 경험 혹은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, 인지저하자 등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

- 배회감지기를 보급받은 어르신들은 해당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치매와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.
- 경찰청은 치매 환자 실종 발생 시 배회감지기를 활용한 수색·수사를 통해 치매 환자가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.

■ 한편, 지역사회 치매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의 「치매자원봉사 시스템」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「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(VMS)」을 연계·운영한다.

-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‘치매파트너’ 및 ‘치매파트너플러스’를 양성하고 있다.

* (치매파트너)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돕는 동반자로 중앙치매센터 등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하는 자원봉사자(’22.8월 136만 명),

** (치매파트너 플러스) 치매파트너 중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(’22.8월 21만 명)

- 중앙치매센터는 「치매자원봉사 시스템」을 운영하여 치매파트너·치매파트너플러스 등의 치매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고 있으며, 사회복지협의회는 「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」을 통해 전국 자원봉사단체·기관에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의 봉사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.

■ 그간 치매 자원봉사활동은 치매자원봉사 시스템 외에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에도 별도로 수기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.

- 이에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두 시스템 간 치매 자원봉사자 및 활동 실적 등 정보가 연계되도록 개선하였다.

- 이번 치매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동 연계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치매 자원봉사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고 치매파트너·치매파트너 플러스에 참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김혜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“민·관 협력을 통한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예방사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친화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개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-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은 “전국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다양한 치매자원 봉사활동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인력 양성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.”라고 전하였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9835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2022.10.11.